

기차타고 봄꽃 가득한 산사로...

남녘으로부터 꽃소식이 들려온다. 동백꽃은 남해 바다를 빨갛게 물들였고, 매화꽃도 차츰 북쪽으로 걸음마를 띄우고 있다. 이달 중순부터 4월초에 걸쳐서는 동백, 매화, 산수유, 벚꽃 등 봄을 대표하는 꽃들이 앞다투어 꽃봉오리를 활짝 열 예정이다. 이에 철도청과 여행사에서는 봄꽃 군락지와 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산사를 연계한 '봄꽃여행 상품'을 발빠르게 내놓고 있다. 주말 교통혼잡 때문에 집 나서기를 주저하는 이들에게 매우 유용할 듯 싶다. 울긋불긋 봄꽃이 어우러진 산사에서 부처님의 법화와 봄기운을 마음껏 마셔보자.



◇울해도 꽃소식과 함께 철도청은 3-4월 꽃놀이 열차를 운행한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들판을 가로질러 봄꽃열차가 힘차게 달리고 있다.

동백꽃

동백꽃은 한 겨울에 잎을 열어 봄에 만개한다. 그래서 동백꽃 여행은 겨울에서 봄으로 옮겨가는 나들이다. 여수 오동도, 해남, 남해, 거제도 등 바닷가 인접 지역에선 이미 꽃망울을 피어올렸고 만개정도는 60~70%정도. 절정시기는 이달 중순까지. 또다른 동백꽃 명소인 전북 고창 선운사는 이달 말에 꽃이 피 4월 초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여수 오동도와 돌산도의 동백이 섬전체를 빨갛게 채색했다. 동백나무 후박나무 소나무숲이 울창한 섬 일주 산책로엔 숲을 스치는 바람소리와 동박새 우는 소리가 어우러져 정취를 더한다. 오동도는 바다풍광이



◇해남 미항사에 활짝핀 동백.

수려하고 향일암(061-644-4742)에선 수백그루의 동백나무가 사찰 암자를 둘러싸고 있다. 동백을 군호로 지정할 만큼 인연이 깊은 전남 해남은 두륜산의 신라 고찰 대둔사(061-534-5502) 입구 1.5km의 동백터널로 유명하다. 중순이면 절정을 이룰 전망이다. 달마산 서쪽 미항사(061-533-3521)아래의 동백꽃 군락지도 지금 꽃망울이 터졌지만 중순에서 말 사이에 가면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남도 답사의 1번지로 불리는 강진 백련사(061-432-0837)도 동백숲이 울창하다. 약 2만여평의 넓이에 3,000여 그루가 자란다. 다른 곳보다 색이 더 붉은 것이 특징이다. 이번 주부터 피기 시작해 이달말까지 동백을 볼 수 있다. 해마다 3월이면 동백축제를 열었는데 올해는 아쉽게도 계획이 없다.

매화꽃

섬진강변 백운산 자락의 매실단지는 벌써 매화의 폭설에 꽃동산을 이뤘다. 매화잔치는 마을 한가운데 자리한 청매실농원(061-772-4066)에서 25일까지 절정을 이룬다. 이 농원에 가면 50년동안 청매실농원을 일군 홍상리 여사의 강연을 듣고, 남도의 봄냄새가 물씬 풍기는 봄나물로 점심식사를 할 수 있다.

돌아오는 길에는 매실원액, 매실 장아찌 등 매실로 만든 갖가지 특산품도 살 수 있다. 청매실농원일대에서 8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제7회 광양매화축제'에서는 '매화꽃길 작은 음악회'를 비롯해 '매화 마라톤대회' '매실 시음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된다.

산수유꽃

지리산엔 매화 못지 않게 산수유꽃이 아름답게 핀다. 노고단 기슭 남서쪽 마을인 전남 구례구 산동면은 돌담길과 개천을 따라 산수유꽃이 핀다. 절정시기는 이달 중순부터 하순까지. 산수유꽃이 군락을 이룬 곳은 산동면의 상위마을. 절정기엔 은통 노랑 꽃구름속에 파묻힐 수 있다. 21~23일까지 지리산 온천관광지 일대에서는 '산수유꽃 축제'가 열린다. '산수유꽃 그리기 대회'를 비롯해 '사진 촬영대회', '꽃차 시음회' 등이 열린다. 행사 문의 구례군청 (061-780-2496). 경기도의 이천 산수유마을은 4월 초순께 절정을 이룰 전망이다.

벚꽃

벚꽃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진해에서는 16만 그루의 벚꽃이 활짝 피고, 수양버들 사이로 화사한 꽃망울을 터트리며 터널을 만들어 장관을 이룬다. 진해군 항제는 지난해부터 매년 4월 1~10일에 못박아 개최한다. 진해시청 관광계 (055-548-2043), 축제준비위원회(055-546-4310). 화개장터에서 쌍계사(055-883-1901) 들어가는 입구의 심리 벚꽃길과 경주 보문단지에서도 4월초면 흐드러진 벚꽃을 감상할 수 있다.

유채꽃

제주도에선 이달 중순이면 유채꽃이 노란 꽃물결을 이루기 시작한다. 남제주군 성산읍 성산일출봉과 산방산 주변이 유채꽃 감상의 포인트. 성산일출봉 터진 목 일대 1,000여평에 걸쳐 한쪽의 그림 같은 노란색 꽃물결이 넘실대며 산방산의 우회도로 주변 500여평을 가득 메운 노란 유채꽃도 아름답다. 이들 유채꽃은 돌유채다 불리는 조생종. 관광객들에 사진 촬영지로 제공하기 위해 재배한 것들이지만 실제 유채꽃 못지 않게 아름답다. 유채꽃은 이달 중순에 개화하기 시작해 4월 중순이후 절정을 이뤄 5월초까지 제주도를 온통 노랗게 물들인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기차여행 상품

| | | | | |
|---|--|---|--|--|
| <h3>섬진강 매화꽃열차</h3> <p>▲기간: 8월-13일 ▲일정: 서울역 출발(07:10)→구례구(12:15)→섬진강변 드라이브→매화마을(청매실 농원)→매화꽃 감상→구례구역 출발(17:35)→서울역(22:40) 도착 ▲가격: 평일(29,500원) 주말(31,000원)</p> | <h3>해남 매화꽃열차</h3> <p>▲기간: 14~20일 ▲일정: 서울역(22:40)출발→목포역(04:05)→땅끝마을 전망대→미항사 참배→보해 매실농원 매화꽃 감상→목포역(14:50)출발→서울역(20:21) 도착 ▲문의: 흥익기차여행사(02-717-1002) ▲가격: 55,600원</p> | <h3>지리산 산수유 꽃맞이열차</h3> <p>▲기간: 21~23일</p> | <h3>삼천포 선진리성 벚꽃열차</h3> <p>▲일정: 서울역(07:45)출발→남원역(12:05)→지리산온천단지→상위마을 산수유축제 관람→남원역(18:05)출발→서울역(22:13) 도착 ▲문의: 흥익기차여행사(02-717-1002), 청송여행사(02-853-7787)에서 패키지발매 ▲가격: 49,400원</p> | <h3>하동 쌍계사 벚꽃열차</h3> <p>▲기간: 4월1일-5일 ▲일정: 당일코스 / 서울역(07:45)출발→남원역(12:05)→지리산 쌍계사 벚꽃길 산책→남원관 광단지 관광→남원역(18:05)출발→서울역(22:13) 도착 ▲문의: 청송여행사(02-853-7787), 흥익기차여행사(02-717-1002) ▲가격: 당일코스(43,200원) / 무박 2일 코스(53,400원)</p> |
|---|--|---|--|--|